

## 1. 요약

- 2006년 기준 브라질 자동차 시장 규모는 411억 달러로 브라질 산업 GDP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에는 17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브라질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총 39개의 생산 시설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은 2006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3.8%를 점유, 일본, 미국, 중국, 독일, 한국,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세계 8위를 차지하였다.
- 자동차 산업 협회 ANFEV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생산된 총 자동차 수는 261만 1,034 대로, 가솔린 차량이 97만 7,134대, 알코올 차량이 775대, Flex Fuel 차량이 1349만 1,636대, 디젤 차량이 24만 1,489대가 각각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84만4천700대를 수출하고 192만7천700대를 국내시장에서 판매했다. 자동차 수입량은 14만1천800대 정도이다
- 브라질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2006년 기준 총 500 여 개 사가 법인 등록돼 있었으며, 약 19만9000 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브라질 전역에 자동차 부품관련 유통업체는 약 250개사, 소매상은 3만 개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올해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자동차 제조업체가 직접 수입한 차량은 54,137 대로 전년 동기 대비 70.77%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브라질 정부는 차량 수입 전문 업체가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35%나 부과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 제조업체가 수입 시에는 관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어 수입 관세로 인한 가격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수입 차량이 자동차 제조업체에 의하여 직접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 한편 달러 가치 하락으로 자동차 부품 수입 업체들은 값싼 중국산 부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입산 부품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부품 중 많은 부분이 수입제품으로, 달러 하락과 함께 국산 제품보다 10~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중국산 또는 다른 국적의 수입산 제품 구입이 가능하다.
- 그간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해 왔던 브라질 자동차 업체들은 차츰 내수 시장 영업 비중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특별히 커다란 변화 없이 1~2년째 같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 소비자들도 이제는 구매하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 이 사실을 입증하듯이 자동차 판매량은 매달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 2007년 5월 기준 브라질 내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GM 의 Gol로 총 9961대가 판매되었다. 2위는 9386대가 팔린 Palio, 3위는 5,297 대를 판매한 Miile가 차지했다.
- 인도 자동차 업체 마인드라(Mahindra)의 소형 트럭과 RV 차량이 오는 7월에 브라질 시장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현재 마나우스에 공장에서 브라질 파트너 Bringer 그룹 소속 업체 브라몬트(Bramont)에 의해 조립 중인 인도 브랜드 자동차는 소형 트럭이

7만~7만8천 헤알, SUV차량이 8만 5000 헤알 선에 판매될 예정으로 기존 동급 차량보다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가 자동차로 유명한 중국산 자동차도 올해 안에 브라질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중국자동차메이커 Changan은 Chana라는 이름으로 조만간 브라질 시장에서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Changan의 주 모델은 소형짐차나 미니밴 등의 유틸리티 차량이 될 것이며 R\$2만 5000 ~R\$3만 선의 가격으로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조만간 석유자원 고갈이 예상되고 있어 대체 에너지 확보 문제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환경오염도 나날이 극심해져 가는 가운데, 가솔린 또는 알코올 단독 사용, 혹은 가솔린과 알코올 혼합사용이 가능한 Flex 차량은 브라질 물론 세계적으로 인기를 더해하는 추세다. 특히 브라질은 알코올의 주원료인 사탕수수 경작지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알코올 공급이 원활하며, 경쟁력 있는 가격을 확보할 수 있어 Flex 차량 수는 더욱 더 증가할 전망이다.
- 폴크스바겐은 현재 브라질에서 유통되고 있는 Flex 차량 전체의 31.5%를 점유하고 있다. 2003년 3월 브라질 최초 Flex 자동차 모델인 Gol 1.6 Flex 를 선보인 이래 현재까지 1백만 대 이상의 Flex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들어났다.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 대부분이 Flex 차량을 생산, 날로 더해가는 Flex 차량의 수요에 부응하기위해 토요타도 5월~6월 사이에 Flex Corolla와 Flex Fielder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브라질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무려 83.5%가 가솔린과 알코올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Flex 차량이다.
- 브라질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보이는 자동차 모델로는 골(Gol), 팔리오(Palio), 우노(Uno), 셀타(Celta), 폭스(Fox), 밀레(Mille) 등으로 조사됐다. 높은 실적을 올린 차량 모두 국민차 수준의 소형 차량이다. 배기량 1.0~2.0 까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브라질 정부의 지속적인 공산품세(IPI) 감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배기량 1.0 이하의 국민차가 자동차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utoinforme 조사에 의하면, 브라질에서 주행하는 수입 차 2대 중 1대는 아르헨티나가 원산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질이 자동차에 대해 쌍무특혜관세협정을 맺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경우 무관세로 브라질에 수출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브라질 현지에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들이 아르헨티나나 멕시코에서 제조, 브라질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수입 차 모델 10개 중 6개의 원산지가 아르헨티나로 아르헨티나 산 수입차는 수입 차 시장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
- 브라질에서는 1920년부터 국내에서 자동차 조립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일찌감치 자동차 유통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었다.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공식 판매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형태의 대리점이 등장하였다. 이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사 제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판매 대리점 형태의 영업을 권장, 현재 제조사 별로 전국 규모의 전문 대리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 자동차 판매 대리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는 자동차 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특정 메이커 자동차 제품만을 취급하게 된다. 일례로 GM의 경우 브라질 전역에 500여개 이상의 전문 대리점이 있으며, 여타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도 수백여 개의 전문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 자동차 대리점 대부분이 신차와 중고차 모두의 판매 및 A/S를 담당하며, 관련 자동차 제조사는 운영 및 영업 일체를 관리한다. 이러한 형태의 영업은 소비자 입자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대리점 모두에서 전문적인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재 브라질에는 특정 브랜드의 차량만 취급하는 4,937 개의 전문 대리점 (Concessionaria) 이 영업 중에 있다. 일반 승용차, 승합차, 트럭, 버스, 모토 사이클, 농업용 차량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정 브랜드 전문 대리점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을 동시에 취급하는 판매점도 다수 영업 중이다.

## II. 시장동향

### 1. 거시 경제 분석

#### □ 브라질 거시경제 동향

- 2004년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금리 인하세,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최근 10년 평균치의 두 배인 4.9%에 달했다.
- 인플레이 억제를 최우선시하는 극도의 긴축재정정책은 외채 조기상환 등 외형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금리가 산업생산성을 악화시키면서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2.3%라는 매우 저조한 경제 성장률로 입증되었다.
- 2006년에는 2006년 GDP 규모는 2조3,230억 헤알(약 1조660억 달러, 세계 10위)이며 1인당 GDP는 12,437 헤알, 3.7%의 성장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는 4.5%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주요 거시 경제 지표]

구분	단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GDP	U\$억	6,022	5,098	4,594	4,933	6,050	7,960	10,660
1인당 GDP	U\$	3,541	2,957	2,631	2,789	3,417	4,321	5,705
경제성장률	%	4.4	1.3	1.9	-0.2	4.9	2.3	3.7

산업생산 증가율	%	6.6	1.6	2.7	0.1	8.3	3.1	2.8
물가상승률 (IPCA)	%	6.0	7.7	12.5	9.3	7.6	5.69	3.1
실업률(연말)	%	4.83	10.6	10.5	10.9	9.6	8.3	10
콜금리(연말)	%	16.5	19.0	25.0	16.5	17.75	18.5	13.25
수출	U\$억	550.9	582.2	603.6	730.8	964.8	1,183.1	1,374.7
수입	U\$억	558.2	555.8	472.3	482.5	627.8	735.3	913.9
무역수지	U\$억	-7.3	26.4	131.3	248	337.0	447.8	460.7
경상수지	U\$억	-242.3	-232.2	-76.4	41.8	116.7	142	119
외국인 직접투자	U\$억	327.8	224.6	165.9	101.4	181.7	151.9	187.8
외환 보유고	U\$억	330.1	358.7	378.2	492.9	529.4	538.0	900
외채	U\$억	2,169.2	2,099.3	2,107.1	2,149.3	2,013.7	1,694.5	1,724.6
환율(연말)	U\$=R\$	1.9554	2.3204	3.530	2.902	2.654	2.2	2.14

1달러=약 R\$1.96, 2007년 6월 11일

자료원: 브라질 중앙은행, IPEA, IBGE 등

#### □ 산업 구조

- 인구 1억8,900만명의 브라질은 남미에서 가장 발달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세계 5위 규모의 철강 생산, 자급률 90%에 이르는 석유산업 분야, 항공 분야 등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브라질 산업은 농업, 목축업, 광업 등의 1차 산업과 내수 위주의 제조업, 항공 등의 첨단산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 석유산업 및 광업 분야도 이미 견고한 국내 기반을 확보한 것은 물론 국제 광구 입찰 등을 통해 세계적 차원의 비즈니스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은 주로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순수 국내업체의 활동은 매우 부진한 편이다. 브라질 정부는 수입부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및 국산부품 사용 의무화 등의 정책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브라질 산업구조(GDP 대비 비중)의 변화 추이]

(단위: %)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농. 축산업	8.3	8.0	8.2	8.3	8.0	8.4	8.7	9.9	10.0	8.4
공업	34.7	35.2	34.6	35.6	37.5	37.7	38.3	38.8	38.9	40.0
광업	1.0	0.9	0.6	1.5	2.5	2.9	3.4	3.9	4.2	4.9
상업	21.5	21.6	20.7	21.4	22.4	22.6	23.3	24.2	24.0	24.2
건설업	9.5	9.9	10.1	9.4	9.1	8.6	8.0	7.2	7.3	7.3
공공서비스	2.7	2.8	3.2	3.3	3.5	3.6	3.6	3.4	3.4	3.6
서비스	57.0	56.8	57.2	56.1	54.5	54.0	53.0	51.3	51.1	51.6
소매	7.8	7.6	7.1	7.1	7.4	7.5	7.7	7.7	7.8	7.6
수송	3.0	3.2	3.0	2.8	2.7	2.7	2.6	2.4	2.2	2.0
통신	1.9	2.0	2.6	2.4	2.7	2.7	2.7	3.2	3.1	3.0
공공행정	16.0	15.4	16.1	16.1	16.3	16.3	16.3	15.8	16.1	16.5
금융기관	28.3	28.6	28.4	27.7	25.4	24.8	23.7	22.2	21.9	22.5

주: IBGE의 GDP신 계산법 이전의 수치임

자료원: 브라질 개발상공부(MDIC)

□ 교역 동향

[브라질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불,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98년	51,140	-3.5	57,763	-3.4	-6,624
1999년	48,011	-6.1	49,295	-14.7	-1,283
2000년	55,086	14.7	55,839	13.3	-753
2001년	58,223	5.7	55,572	-0.4	2,651
2002년	60,362	3.7	47,216	-15.0	13,143
2003년	73,084	21.1	48,253	2.2	24,831
2004년	96,475	32.0	62,779	30.0	33,696
2005년	118,309	22.6	73,545	17.1	44,785
2006년	137,470	16.2	91,396	24.3	46,074

자료원: 브라질 개발상공부

[브라질의 주요 교역국가(단위: 백만불, %)]

순위	국가	2006년	2005년	증감
1	미국	39,121	35,136	11.3
2	아르헨티나	19,770	16,154	22.4
3	중국	16,389	12,187	34.5
4	독일	12,178	11,167	9.1
5	일본	7,723	6,883	12.2
6	칠레	6,804	5,312	28.1
7	네델란드	6,529	5,869	11.2
8	이탈리아	6,399	5,500	16.3
9	멕시코	5,750	4,907	17.2
10	프랑스	5,499	5,202	5.7
11	나이지리아	5,258	3,605	45.9
12	한국	5,028	4,223	19.1
13	러시아	4,386	3,639	20.5
14	영국	4,239	3,967	6.9
15	베네수엘라	4,147	2,472	67.8

자료원: WTA

- 2006년 기준 브라질은 한국의 제24대 수출 대상국(2003년 32대)으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8대)에 이은 제2대 수출 대상국이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의 7대 수입 대상국이며 19대 수출 대상국이다.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불,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97	1,711	14.3	1,239	-6.5	472	2,950
1998	1,792	4.7	693	-44.0	1,099	2,485
1999	1,209	-32.5	909	31.2	299	2,118
2000	1,724	42.6	935	2.8	789	2,659
2001	1,611	-6.5	1,126	20.4	486	2,737
2002	1,247	-22.6	1,248	10.9	-1	2,495
2003	1,137	-8.8	1,619	29.8	-482	2,756
2004	1,785	56.9	2,195	35.6	-410	3,980
2005	2,411	35.1	2,501	13.9	-90	4,912
2006	3,063	27.1	2,707	8.2	356	5,770
2007(1-2월)	419	-12.3	367	-2.9	52	786

자료원: KOTIS

- 2007년 2월 기준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한 419백만불이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367백만불이다.
- 한편, 2007년 2월 기준 대 브라질 수출 호조 품목은 철강제품(223.6%), 자동차(101.6%), 기계요소공구금형(87.2%), 직물 (63.1%), 타이어 (56.6%), 산업기계(51.9%), 고무제품 (46.9%)이다. 부진품목은 충전기기(-65.7%), 석유화학제품 (-29.5%), 산업용 전자제품 (-27.6%), 가정용전자제품 (-23.3%), 전자부품 (-20.5%), 정밀화학제품 (-13.9%), 기초산업 기계 (-4.4%) 등이다.

## 2. 시장 개요

### □ 시장 현황

- 브라질 자동차 시장은 최근 3-4년 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06년 기준 약 411억 달러로 전체 GDP의 약 14.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 협회 ANFEV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생산된 총 자동차 수는 261만 1,034 대로, 가솔린 차량이 97만 7,134대, 알코올 차량이 775대, Flex Fuel 차량이 1349만 1,636대, 디젤 차량이 24만 1,489대가 각각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 브라질은 2006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3.8%를 점유, 일본, 미국, 중국, 독일, 한국,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세계 8위를 차지했다.

###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 국가-2006년]

(단위: 대)

순위	국가	자동차 생산량(대)
1	일본	11,484,233
2	미국	11,263,986
3	중국	7,188,708
4	독일	5,819,614
5	한국	3,935,910
6	프랑스	3,169,219
7	스페인	2,777,435
8	브라질	2,611,034
9	캐나다	2,572,292
10	멕시코	2,045,518

자료원: OICA

- 현재 브라질에는 17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브라질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총 39개의 생산 시설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다.

- 이중 폴크스바겐이 5개 공장을 보유 가장 많은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순수 자본으로 설립한 기업 아그랄레(Agrale)와, 지엠, 포드가 각각 4개 공장, 르노와 피아트가 각각 3개 공장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버스차체나 트럭을 생산하는 업체는 총 8개사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Marcopolo 및 Busscar, Comil, Ciferal사 등이 있다.
- 최근에는 한국 현대차도 브라질 공장 준공식을 가져,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 자동차 브라질 대리점인 까오아(Caoa)가 고이아스(Goias) 주 아나폴리스(Anapolis) 시에 건설한 공장은, 소형 상용차 수요 증가에 따라 ‘포터’ 연간 1만대 조립 생산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승용차, RV 차량 등 연 5만 대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 업체 현황]

Empresas Companies	PRODUTOS <sup>(1)</sup> / Products <sup>(2)</sup>				FÁBRICAS Plants	CONCESSIONÁRIAS Dealers (Dez/06/ Dec/06)	EMPREGO Employment (Dez/06/ Dec/06)
	Automóveis Cars	Comerciais leves Light commercials	Caminhões Trucks	Ônibus Buses			
Agrale		■	■	■	4 <sup>(3)</sup>	87	1.039
DaimlerChrysler	■		■	■	2	190	13.024
Fiat	■	■			3	413	9.604
Ford	■	■	■		4	427	9.796
General Motors	■	■			4	378	20.469
Honda	■				1	89	1.997
International			■		1 <sup>(4)</sup>	- <sup>(4)</sup>	32
Iveco		■	■	■	2 <sup>(5)</sup>	54	802
Kamann-Ghia <sup>(6)</sup>	■				1	-	448
Mitsubishi		■			1	114	1.469
Nissan		■			1 <sup>(7)</sup>	62	- <sup>(8)</sup>
Peugeot Citroën	■	■			2	186 <sup>(9)</sup>	2.632
Renault	■	■			3	129	3.281
Scania			■	■	1	85	2.629
Toyota	■				2	116	2.755
Volkswagen*	■	■	■	■	5	420	22.434
Volvo			■	■	2	106	1.871

자료원: ANFEVEA

□ 자동차 시장 동향 (2007년 1/4분기 기준)

- 2007년 1/4 분기 브라질 자동차 시장은 동 기간 역대 최고 매출액을 보였다. 자동차 ANFAVEA는 2007년 브라질 자동차 시장이 전년대비 약 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11% 성장, 210만대 판매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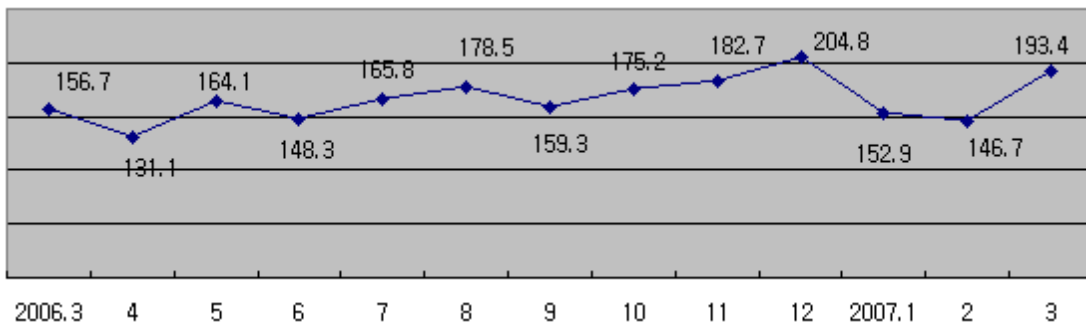


성장의 주원인으로는 금리 인하, 장기 할부판매, 경제안정 등을 들 수 있다.

- 3월 1달 동안에만 전월 대비 31.8% 증가, 전년동월 대비 23.2% 증가한 19만 3400 여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동차 조립업체들과 판매업체들은 올해 예상 매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GM의 경우는 연초 전망치보다 10만대가 늘어난 230만대를 2007년 12월까지 판매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피아트 역시 올해 말까지 판매 예상 차량 수를 전년대비 약 28만대가 늘어난 약 220만 대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12개월 승용차, 승합차, 트럭, 버스 판매 실적]**

(단위: 1000대)



자료원: 자동차 조립 업체/ DENATRAN

- 일반 승용차 및 승합차 부분에서 피아트는 시장 점유율 25.4% 로 1위를 기록했다. 폴크스바겐은 23.6%, 지엠이 21.2%, 포드는 11%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브라질 자동차 유통 연맹 FENABRAVE에 의하면, 2007년 1/4분기 동안 트럭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12% 성장하였다. 반면 버스 판매는 같은 기간 14.8% 하락하였다.
- DENATRAN(교통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브라질은 현재 약 4530만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2780만대가 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파울루 주에서는 1,300만여 대의 자동차가 주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자동차 생산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ANFAVEA)

연도	자동차	농업용 차량	Total	산업GDP 비중(%)
2001년	28,482	2,990	31,472	13.0
2002년	26,979	3,687	30,665	12.4
2003년	26,131	3,976	30,107	12.0
2004년	32,329	5,598	37,927	14.0
2005년	34,891	4,005	38,896	14.1
2006년	37,361	3,786	41,147	14.5

자료원: Anfae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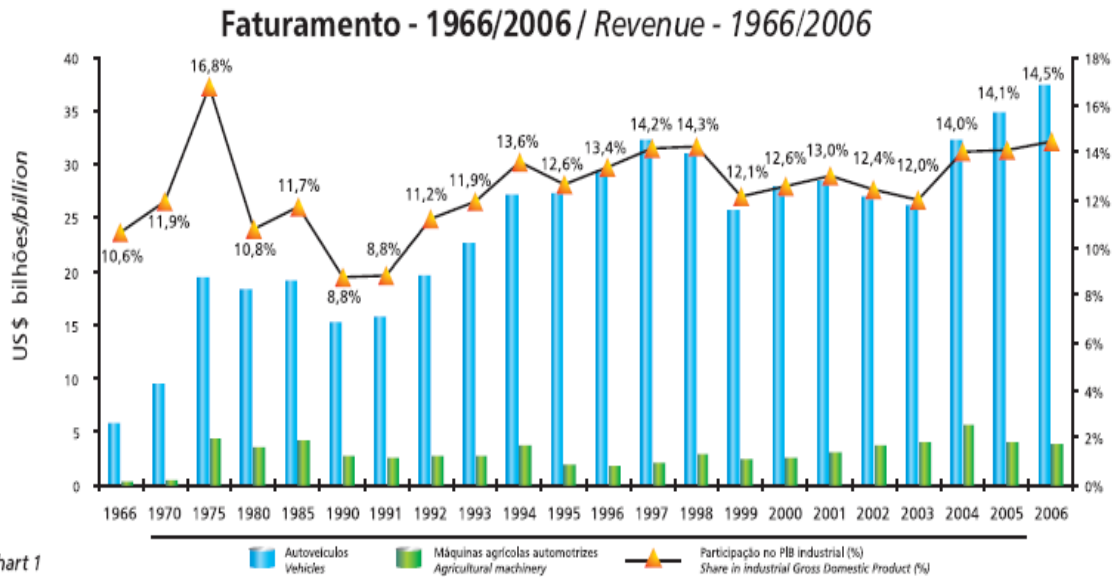


Chart 1

#### □ 자동차 부품시장

- 상파울로주의 경우 약 12,000여개 자동차 부품 전문 판매업체가 영업 중이다. 이 중 65%에 가까운 업체가 상파울루 시 외곽의 ABC 지역 (Santo Andre, Sao Bernardo, Sao Carlos)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브라질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2006년 기준 총 500 여 개 사가 법인 등록돼 있었다. 약 19만9000 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브라질 전역에 자동차 부품관련 유통업체는 약 250개사, 소매상은 3만 개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브라질 자동차부품 조합의 통계를 살펴보면 2004년 브라질 자동차부품 시장 매출액은 약 185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약 40% 성장했다. 2005년도는 전년대비 36%성장한 252억 달러로 마감했다. 2006년 매출액은 약 2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
- 브라질 자동차 부품 무역수지의 경우, 2004년에는 각각 60억6000만 달러와 55억9000만 달러를 달성해 약 4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2005년 수출액은 74억8620만 달러, 수입액은 66억5440만 달러로 8억318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수입은 67억 7920만 달러, 수출은 87억 6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139%나 증가한 19억 848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면서 한해를 마감했다.
- 2006년 한 해 동안 브라질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의 대부분인 61.5%가 자동차 조립업체에게 판매되었으며, 12%는 사후 서비스 시장용, 19%는 수출용, 7.5% 기타 용도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 브라질 전국의 자동차 수리 및 정비 전문 업체(카 센터) 수는 현재 92,448개로 조사되었다.

연간 1,974만 헤알(1달러=1.95헤알)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파울루 주의 경우 15,742개의 카센터가 영업 중으로, 경차(輕車) 수 938만 대를 기준으로 하면 593대당 1개의 카센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수리 및 정비 시장 매출액은 78억 헤알로, 자동차 시장 전체 매출액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큰 분야이다.

□ 주요 부품수입동향 및 원산지

[주요 부품 수입 동향]

단위: US\$ FOB 1000

순위	HS Code	2000년	%	2005년	%	2006년	%	2006년/2000년
1	8708.99.90	646,049	15.26	854,753	12.82	828,973	12.23	28.31
2	8708.40.90	227,557	5.37	420,097	6.30	441,169	6.51	93.87
3	8708.29.99	261,119	6.16	397,612	5.96	414,633	6.12	58.80
4	8409.91.90	86,365	2.04	167,695	2.52	170,195	2.51	97.06
5	8407.34.90	211,862	5.00	186,780	2.80	158,949	2.34	-24.98
6	8708.39.00	84,210	1.99	182,149	2.73	158,504	2.34	88.22
7	9032.89.29	68,725	1.62	162,712	2.44	154,821	2.28	125.27
8	8483.40.90	91,563	2.16	143,703	2.16	148,463	2.19	62.14
9	4016.93.00	79,015	1.86	116,112	1.74	132,880	1.96	68.17
10	8408.90.90	46,736	1.10	110,204	1.65	126,301	1.86	170.24

자료원: SINDIPECAS

[자동차 부품 주요 수입국]

단위: US\$ FOB 1000

순위	국가	2000년	%	2005년	%	2006년	%	2006년/2000년
1	독일	828,389	19.55	1,328,650	19.96	1,132,948	16.71	36.77
2	미국	810,733	19.14	975,856	14.66	1,008,133	14.87	24.35
3	일본	523,465	12.36	925,466	13.91	996,288	14.70	90.33
4	아르헨티나	545,949	12.89	712,066	10.70	768,100	11.33	40.69
5	프랑스	265,877	6.28	596,313	8.96	627,201	9.25	135.90
6	이탈리아	386,933	9.13	361,533	5.43	389,397	5.74	0.64
7	스웨덴	153,943	3.63	286,942	4.31	294,787	4.35	91.49
8	중국	20,188	0.48	138,304	2.08	215,053	3.17	965.26
9	영국	145,591	3.44	174,099	2.62	179,095	2.64	23.01
10	스페인	64,843	1.53	151,921	2.28	145,189	2.14	123.91
11	태국	8,375	0.20	105,201	1.58	129,495	1.91	1,446.27
12	멕시코	117,610	2.78	147,481	2.22	128,919	1.90	9.61
13	체코	5,265	.12	119,004	1.79	96,972	1.43	1741.70
14	스위스	22,053	0.52	119,985	1.80	92,080	1.36	317.54
15	핀란드	16,184	0.38	27,668	0.42	46,728	0.69	188.72

16	터키	10,623	0.25	22,838	0.34	42,699	0.63	301.93
17	벨기에	29,145	0.69	37,355	0.56	38,811	0.57	33.17
18	한국	23,736	0.56	29,569	0.44	35,747	0.53	50.60
19	폴란드	2,738	0.06	26,783	0.40	35,301	0.52	1,189.14
20	남아공	3,633	0.09	35,067	0.53	34,702	0.51	855.14

자료원: SINDIPEC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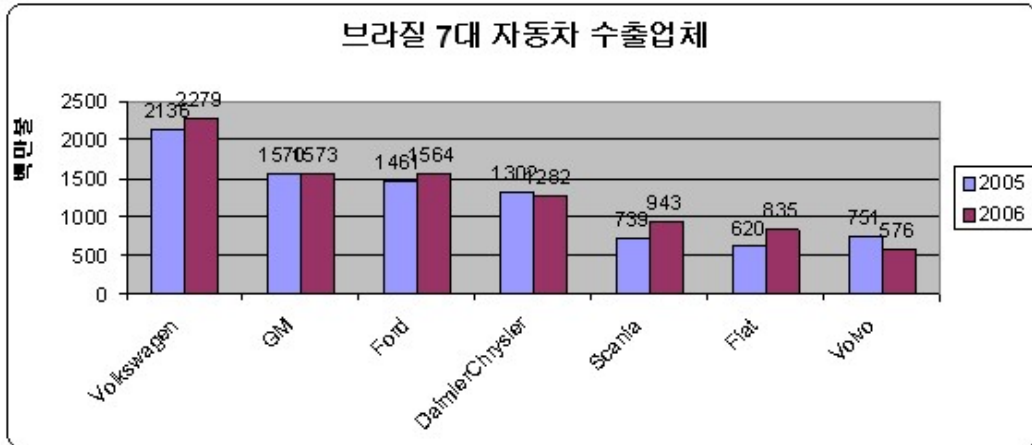
□ 브라질-우루과이 자동차 협정 확대 체결

- 브라질과 우루과이는 지난 1986년 체결한 자동차 협정을 확대 보안하는 내용의 협정을 최근 체결하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브라질은 연간 6천500대, 우루과이는 연간 2만대의 상용차를 상호 무관세 수출하게 되었다.
- 특히 우루과이는 연간 2천대의 방탄차량과 소형트럭 및 SUV 차량 각 2천500대를 브라질 시장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브라질은 기존의 대(對)우루과이 자동차 무관세 수출쿼터(연간 6500대 수출)를 유지할 예정이며, 이 대가로 대(對)우루과이 투자 증가를 약속하였다.
- 우루과이의 경우, 대(對)브라질 무관세 차량 수출쿼터 증가를 약속 받아 수출량이 기존 20,000대에서 22,000대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총 2,000대가 수출될 예정인 방탄차량의 경우 외국산 차를 수입해 우루과이에서 방탄가공 과정을 거쳐 브라질로 수출될 예정이다. 브라질 정부는 우루과이산 방탄차량 매출액이 연간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밖에도 우루과이산 1.5~3톤 트럭 2500대와 SUV 차량 2500대도 브라질로 수출될 예정으로 있다.
- 이번에 브라질-우루과이 양국이 체결한 자동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2007년 7월1일에서 2008년 6월30일까지 1년간으로, 이 기간 내에 "메르코수르 내 자동차 수출입 시장 자유화 정책(Politica Automotiva do Mercosul: PAM)" 합의가 이루어져 동 협약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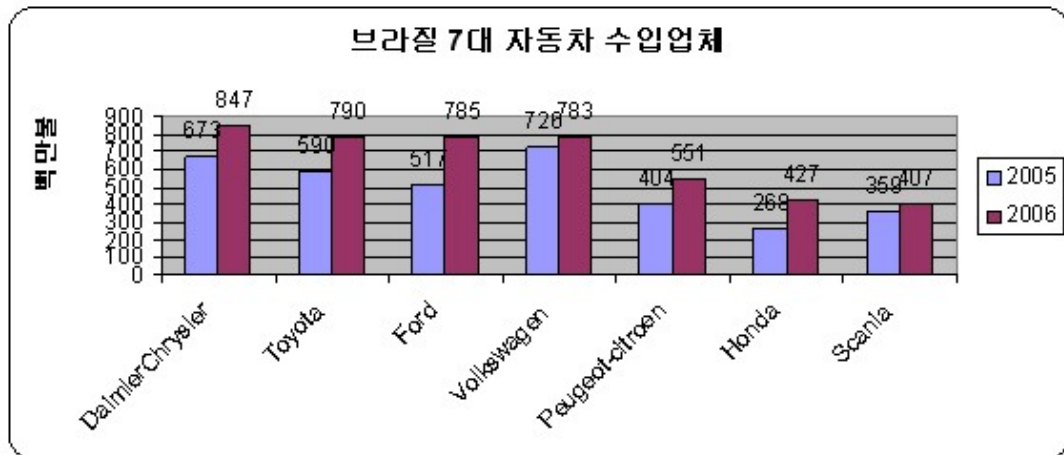
□ 2006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별 수출입 동향

- 2006년도 브라질 7대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출액은 총 90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브라질 수출총액인 1,374억 6,000만 달러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알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동 업체들의 수출실적은 2005년도의 85억 8000만 달러보다 5.5% 성장했다.
- 달러 가치 약세로 7대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입 또한 증가했는데 2006년의 경우 전년보다

29.7%증가한 45억 9000만 달러를 기록, 브라질 수입총액인 913억 9000만 달러의 5.02%를 점유하였다.



자료원: SECEX(Gazeta Mercantil 2007.2.2~4일 판)



자료원: SECEX(Gazeta Mercantil 2007.2.2~4일판)

- 2006년 가장 큰 수출실적을 올린 Volkswagen사는 전년보다 6.5% 증가한 22억 70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고, 수입은 5억 5100만 달러로 4위를 차지했다. 수출 2위를 차지한 GM은 전년보다 7% 증가한 15억 6400만 달러 수출, 수입은 3억 8100만 달러를 기록해 8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Ford사는 2006년에 전년보다 7% 증가한 15억 6400만 달러 수출, 7억 85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해 수출입 모두 3위를 차지했다. Daimler-chrysler사는 수출 12억 8200만 달러, 수입 8억 4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 달러 가치 하락으로 수출보다는 내수 시장 위주 영업

- 브라질 자동차산업협회(Anfavea)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이 260만6천300대(CKD 생산은 20만6천500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84만4천700대를 수출하고 192만7천700대를 국내시장에서 판매했다. 자동차 수입량은 14만1천800대 정도이다.
- 2002년 이후 달러약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자동차 수출량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 접어들어 전년대비 50,000 여대가 줄어든 84만대를 수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 한편 달러 가치 하락으로 자동차 부품 수입 업체들은 값싼 중국산 부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 들은 수입산 부품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부품 중 많은 부분이 수입제품으로, 달러 하락과 함께 국산 제품보다 10 ~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중국산 또는 다른 국적의 수입산 제품 구입이 가능하다.
- 따라서 그간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해 왔던 브라질 자동차 업체들은 차츰 내수 시장 영업 비중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특별히 커다란 변화 없이 1~ 2년째 같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 소비자들도 이제는 구매하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 이 사실을 입증하듯이 자동차 판매량은 매달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3. 경쟁 동향 분석

[자동차 제조업체 생산 현황 (2006년)]

(단위: 대)

업체명	승용차	승합차	트럭	버스	Total
Agrale	-	25	406	3,994	4,425
DaimlerChrysler (Mercedes-Benz)	-	-	29,546	20,783	50,329
Fiat	480,552	81,979	-	-	562,531
Ford	176,521	122,334	21,269	-	320,124
General Motors	462,918	87,267	-	-	550,185
Honda	78,962	-	-	-	78,962
International	-	-	1,389	-	1,389
Iveco	-	586	2,784	135	3,505
Mitsubishi	-	20,171	-	-	20,171
Nissan	-	8,661	-	-	8,661
Peugeot Citroen	89,738	5,948	-	-	95,686
Renault	60,314	5,290	-	-	65,604
Scania	-	-	14,275	1,819	16,094
Toyota	57,991	-	-	-	57,991
Volkswagen	685,007	46,960	28,040	6,048	756,055
Volvo	-	-	8,292	1,030	9,322
Total	2,092,003	379,221	106,001	33,809	2,611,034

자료원: ANFAVEA 연감 2007

□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판매 동향 (2007년 6월 초 기준)

- 2007년 5월 기준, 이탈리아 기업 피아트가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브라질 역사 상 가장 높은 자동차 판매 기록을 세운 5월 한 달 동안 피아트는 53,702대를 판매하여 전체 판매량 200,575 대의 26.8%를 차지했다. 피아트의 5월까지 누적판매량도 사상 최대 기록으로 5개월 동안 214,065 대나 판매하였다.
- 2위는 폴크스바겐으로 45,453대를 판매, 시장점유율 22.7%를 차지하였다. 3위는 41,268대를 판매한 GM 으로 20.6%의 시장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위는 22,583대를 판매한 포드로 전체 자동차 시장의 11.3%를 점유하고 있다.
- 1~5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22,583대로 883,621대로 전년 동기간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판매량]**

2007년 5월 기준

업체	판매량(대)	점유율(%)
Fiat	53.702	26,8
Volks	45.453	22,7
GM	41.268	20,6
Ford	22.583	11,3
Honda	7.815	3,9
Peugeot	6.940	3,5
Toyota	5.864	2,9
Renault	5.405	2,7
Citroën	4.071	2
Mitsubishi	2.469	1,2
Nissan	946	0,5
Mercedes-Benz	622	0,3
Land Rover	314	0,2
Kia	490	0,2
Audi	189	0,1
Iveco	114	0,1
Volvo	53	0
기타	2.273	0,1

자료원: RENAAM

[2007년 1~5월 누적 판매량]

업체	판매량(대)	점유율(%)
Fiat	214.065	25,5
Volks	195.576	23,3
GM	178.107	21,2
Ford	97.013	11,5
Honda	28.979	3,4
Peugeot	28.014	3,3
Toyota	27.655	3,3
Renault	25.970	3,1
Citroën	15.680	1,9
Mitsubishi	10.142	1,2
Nissan	3.378	0,4
MercedesBenz	2.939	0,3
Kia	1.809	0,2
Audi	1.185	0,1
Iveco	484	0,1
Land Rover	1.066	0,1
Volvo	234	0
기타	7.956	0,9

자료원: RENAAM

□ 자동차 모델 별 판매 순위 (2007년 5월 중순 기준)

- 2007년 5월 기준 브라질 내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GM 의 Gol로 총 9961대가 판매되었으며, 2위는 9386대가 팔린 Palio, 3위는 5,297 대를 판매한 Mille가 차지했다.

순위	차량 모델	판매량(대)
1	Gol	9.961
2	Palio	9.386
3	Mille	5.297
4	Celta	5.074
5	Fox	4.737
6	Siena	3.573
7	Corsa 세단형	3.567
8	Fiesta	2.818
9	Strada	2.371
10	Prisma	2.085
11	Civic	1.940



12	Fiesta 세단	1.865
13	Ecosport	1.797
14	Saveiro	996
15	Kombi	897

자료원: Renavan (교통부 등록 차량 기준)

□ 현대 차 공장 설립

- 현대 자동차가 지난 4월 20일 브라질에서 대규모 현지 조립생산 공장 건설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남미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차는 브라질 내 유명 자동차 판매업체인 카오아(CAOA)에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CKD(Complete Knock Down. 반조립제품)형태로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 2억1천만달러를 투자해 50만평 규모에 조성된 생산 공장은 도색 및 조립 라인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연간 5만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공장 건설에 들어간 비용은 현대차의 투자없이 카오아가 자체조달한 자금으로 충당됐으며, 올해 안에 7천만 달러가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 현대차와 카오아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우선 1.8t 소형트럭인 HR(한국명 리베로) 생산을 시작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는 투산 및 산타페 등 SUV 차량, 내년 초에는 엘란트라 승용차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승용차 생산이 이루어지는 내년부터는 연간 13만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고, 장기적으로 23만대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 현대차와 카오아는 현지 부품 조달 비율을 올해 40%, 내년 50%, 2009년부터는 60%로 점차 높여가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품의 현지조달 비율을 높이더라도 시트, 타이어, 배터리, 라이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부품 조달은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보여 현대차로서는 안정적인 자동차 부품 수출시장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브라질이 남미 최대 경제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인근 남미국가들에 대한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시장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 중국 차 인도차 등 저가 차량 현지 생산

- 인도 자동차 업체 마인드라(Mahindra)의 소형 트럭과 RV 차량이 오는 7월에 브라질 시장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현재 마나우스에 공장에서 브라질 파트너 Bringer 그룹 소속 업체 브라몬트(Bramont)에 의해 조립 중인 인도 브랜드 자동차는 소형 트럭이 7만~7만8천 헤알, SUV 차량이 8만 5000 헤알 선에 판매될 예정으로 기존 동급 차량보다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현재 사용 부품의 49% 만을 인도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는 마인드라는 1년 후에는 전체부품의 55~60%, 2년 후는 80%를 국내에서 공급받을 계획이다. 브라운트는 2가지 종류의 소형 트럭과 SUV 차량을 합쳐 월 2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마인드라는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공장을 설립한 유일한 자동차 업체로 수입세 감면 및 공산품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 저가 자동차로 유명한 중국산 자동차가 올해 안에 브라질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중국자동차메이커 Changan은 Chana라는 이름으로 조만간 브라질 시장에서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Changan의 주 모델은 소형집차나 미니밴 등의 유틸리티 차량이 될 것이며 R\$2만 5000 ~R\$3만 선의 가격으로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의 Districar 대리점을 통해 조립 및 수입 판매될 예정이며 초기에는 월 150~20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격대는 당분간 브라질 시장에서의 동일 차종의 평균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Chery 자동차도 우루과이에서 생산을 개시해 브라질 시장에 수출할 계획이어서 브라질 자동차 생산자 협회(Associacao Nacional dos Fabricantes de Veiculos Automotores)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hery사에서 생산하게 될 Compacto QQ 모델은 메르꼬솔(남미 공동시장)의 관세혜택을 받고 수출될 것이므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모델은 브라질 시장에서 가장 싼 자동차라 할 수 있는 Mille(Fiat사)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이며 2만 헤알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III. 마케팅 참고 사항

#### 1. 제품 트렌드

##### □ 국민차

- 브라질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보이는 자동차 모델로는 골(Gol), 팔리오(Palio), 우노(Uno), 셀타(Celta), 폭스(Fox), 밀레(Mille) 등으로 조사됐는데, 동 차량은 모두 국민차 수준의 소형 차량이다.
- 배기량 1.0~2.0 까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브라질 정부의 지속적인 공산품세(IPI) 감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배기량 1.0 이하의 국민차가 자동차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0년의 경우 배기량 1.0~2.0 차량의 공산품세는 20%(알코올일 경우로 가솔린 차량은

25%였다. 2002년에 13%(가솔린15%)로 하락, 현재는 11%가 부과되고 있어, 배기량 1.0% 이하의 국민차 세금인 7%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내 시장 판매 비중 5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배기량 1.0~2.0 차량에 대해 공산품세 감면 혜택이 없었던 2002년 이전에는 국민차가 내수 시장의 72%를 점유했었다. 그러나 세금 감면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국민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적어도 향후 수년 동안 국민차 비중은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 브라질 시장에서 국민차 수요가 높은 이유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배기량 때문에 힘은 약하지만 차량의 가격, 보험료, 자동차 보유세(IPVA), 연비 등 종합적인 면에서 배기량이 큰 차량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국민차는 최대한 단가를 낮추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항목만 추가해 생산하고 있다. 특히, 고가의 액세서리는 공장에서 설치할 경우 정품 가격이 적용되고 이는 자동차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차를 구입한 후 블랙마켓에서 취향에 맞게 30~50% 저렴하게 구매를 해 설치하는 추세이다.

[자동차 공산품세 변동 추이]

	배기량 1.0차량(국민차)(%)	배기량 1.0~2.0차량
2000년	10	20%(알코올) 25%(가솔린)
2002년	9	13%(알코올) 15%(가솔린)
2007년	7	11%(플렉스 차량)

□ Flex 차량

- 브라질에서는 이미 십 수 년 전에 Flex 차량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마침내 Bosch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Flex 모터 제조 기술을 약 4년 전에 개발,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 일대 혁명을 가져왔다. 현재 브라질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무려 83.5%가 가솔린과 알코올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Flex 차량이다.
- 조만간 석유자원 고갈이 예상되고 있어 대체 에너지 확보 문제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환경오염도 나날이 극심해져 가는 가운데, 가솔린 또는 알코올 단독 사용, 혹은 가솔린과 알코올 혼합사용이 가능한 Flex 차량은 브라질 물론 세계적으로 인기를 더해하는 추세이다.

- 특히 브라질은 알코올의 주원료인 사탕수수 경작지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알코올 공급이 원활하며, 경쟁력 있는 가격을 확보할 수 있어 Flex 차량 수는 더욱 더 증가할 전망이다.
- 폴크스바겐은 현재 브라질에서 유통되고 있는 Flex 차량 전체의 31.5%를 점유하고 있다. 2003년 3월 브라질 최초 Flex 자동차 모델인 Gol 1.6 Flex를 선보인 이래 현재까지 1백만 대 이상의 Flex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 대부분이 Flex 차량을 생산, 날로 더해가는 Flex 차량의 수요에 부응하기위해 토요타도 5월~6월 사이에 Flex Corolla와 Flex Fielder를 선보일 예정이다.
- 또한 브라질은 프랑스에 플렉스(Flex) 엔진을 수출할 예정으로, 2007년 하반기에는 동 엔진을 장착한 푸조 307과 시트로엥 C4가 유럽에서 시판된다. 벨기에는 현재 유럽에서 유일하게 Flex 엔진을 사용하는 국가이나 브라질 산 엔진은 아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브라질 기술로 만든 엔진을 최초로 사용하게 되는 유럽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수입차 현황

- 고급 수입차
  - 최고급 수입 승용차 판매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포르쉐, 재규어, 페라리 등의 럭셔리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수입산 럭셔리 카” 판매량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해알화 대비 달러 가치 하락이다. 최근 3~4년간 지속되어온 달러 가치 하락으로 명품 수입차 가격은 대폭 하락하였으며, 과거에는 지나치게 비싸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이제는 점차 최고급 수입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고급 수입차 판매량]**

(단위: 대)

제품명	2005년	2006년
Porche	235	438
Jaguar	80	146
Ferrari	20	30
Hummer	7	27
Lamborghini	2	4
Lincoln	2	3

자료원: Renavam

- 2005년 브라질 시장에 80대를 판매한 재규어는 2006년 전년대비 82.5% 증가한 146대를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재규어는 중장년 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라는 선입견에서 탈피하기위하여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스포츠 스타일 자동차 X-Type을 17만 4000 헤알에 시장에 내놓았다. X-Type은 30만 헤알 이상을 호가하는 기존 재규어 모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 때문에, 집 한 채 값의 고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불티나게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 포르쉐 역시 2005년 대비 50% 증가한 456 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재규어와 마찬가지로 판매량 증가의 비결은 스포츠형 차량 개발로, 동사가 야심차게 선보인 스포츠형 자동차는 Cayman Sport이다. Cayman Sport를 시판하기 시작한 이래 포르쉐 차량 판매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고급차 시장점유율 37%인 벤츠는 2005년 1650대 판매보다 29.5% 증가해 2006년에는 2137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BMW의 경우는 2005년 1805대에서 2006년 2145대로 판매가 18.7%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BMW는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6년 연속 지키고 있다.

○ 수입차 절반이 아르헨티나 산

- Autoinforme 조사에 의하면, 브라질에서 주행하는 수입 차 2대 중 1대는 아르헨티나가 원산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질이 자동차에 대해 쌍무특혜관세협정을 맺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경우 무관세로 브라질에 수출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브라질 현지에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들이 아르헨티나나 멕시코에서 제조, 브라질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가장 많이 판매되는 수입 차 모델 10개 중 6개의 원산지가 아르헨티나로 아르헨티나산 수입 차는 수입 차 시장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1/4분기 수입 차 판매 1위인 폴크스바겐의 SpaceFox의 경우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공장에서 생산, 브라질로 수출되고 있다. 2위는 토요타의 Hilux도 역시 아르헨티나에서 제조되며, 3위인 포드의 Fusion은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있다. 판매 순위 상위 10위 모델 중 원산지가 남미국가가 아닌 것은 현대의 투싼 뿐이다.
- 한편 1/4분기 원산지 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산이 48.5%, 멕시코산이 10.5%, 한국산이 7.2%, 일본산이 4.0%, 독일산이 2.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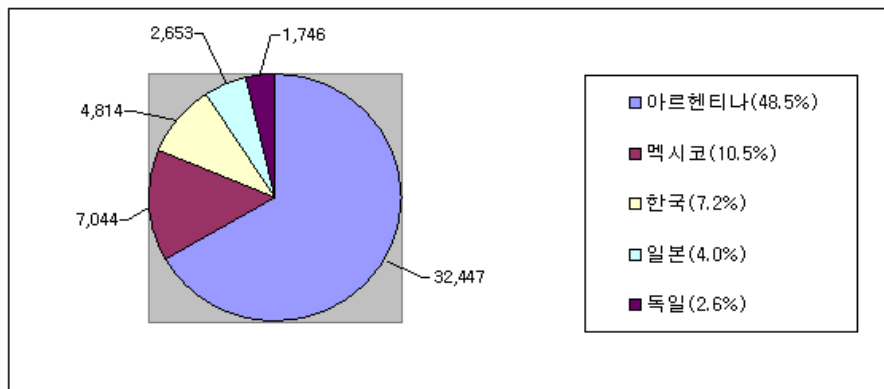
[2007년 1/4분기 수입 차 판매 동향]

순위	모델	판매량(대)	원산지
1	SpaceFox	7.874	아르헨티나
2	Hilux	5.437	아르헨티나
3	Fusion	4.042	멕시코
4	Focus	4.019	아르헨티나
5	Peugeot 307	3.559	아르헨티나
6	Ranger	3.203	아르헨티나
7	Tucson	2.243	한국
8	Focus sedã	2.204	아르헨티나

9	Hilux SW4	1.972	아르헨티나
10	Peugeot 307 sedã	1.787	아르헨티나
11	Tracker	1.496	아르헨티나
12	Jetta	968	멕시코
13	Bora	930	멕시코
14	F250	896	아르헨티나
15	New Beetle	804	멕시코
16	Pajero	674	일본
17	Hyundai HR	604	한국
18	Discovery	475	영국
19	RAV4	401	일본
20	Passat	391	독일

자료원: Renavam

[수입차 원산지 별 시장 점유율- 2007년 1/4분기 기준]



자료원: Renavam

## 2. 가격 트렌드

### □ 장기 할부 판매

○ 자동차 생산업체는 물론 일부 금융기관까지 대규모의 자동차 판촉 이벤트를 기획하여 특별 할인가격 및 장기 할부 판매로 신차 및 중고 차량 도.소매업자 및 일반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에는 대부분 경품 추첨 코너가 마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행사장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특별히 저렴한 이자로 장기할부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 보또랑칭(Votorantim)그룹 소속 금융업체 BV Financeira의 경우, 1헤알(약 1.95달러)만

지불하면 72개월 할부로 구입이 가능한 플랜을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일례로 2002년도 세단형 Corsa의 경우 현재 19,300 헤알에 구입이 가능한데, 72개월 할부할 경우에는 1헤알만을 구매시에 지불하며 나머지 (497.55헤알 X 72, 즉 총 35,800 헤알)를 5년에 걸쳐 지불하게되는 것이다.

- 현재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100당 70 대 이상이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신차 1대가 판매될 때 중고차는 5대 가량 팔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자동차 구입을 위한 신용 할부는 매우 위험도가 낮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만일 구매자가 할부금을 제대로 갚아 나가지 못할 경우, 금융 기관은 자동차를 구매자로부터 회수, 경매에 붙여 되 팔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Banco do Brasil 같은 국영은행도 이러한 자동차 구입 신용 할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추세다.

#### □ 중고차 시장

- 지하철 및 철도 시스템 미비하다. 잦은 파업으로 버스 운행 중단 사례 빈번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브라질에서 자동차는 이동을 위한 필수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고소득층은 물론이고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층 소비자들까지 자동차를 구입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브라질 중고차 시장은 매우 활성화 되어있으며, 가격도 신차보다는 물론 저렴하지만 결코 싼 편이 아니다.
- 브라질 자동차 시장 정보 사이트 Autoinforme 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형차, 미니밴, 승합차 등의 차량이 감가상각율이 높다. 반면에 소형차, 세단형 차량, 해치 백(Hatch Back) 형 차량 등은 감가상각율이 비교적 낮아 시간이 흘러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모델인 것으로 밝혀졌다.
- 승용차 및 승합차 평균 감가상각율의 경우 사용한지 1년 된 차량에 10.02%, 2년 된 차량은 12.24%가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신차 구입 후 2년이 경과된 후에는 감가상각율이 1~2% 정도로 소폭 변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한지 1년 된 중고차는, 새 차 성능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가격은 새 차보다 10%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선호하고 있다.
- 세단형 차량 중에서는 지엠의 벡트라(Vectra), 혼다의 시빅(Civic)이, 소형차 분야는 골(Gol)과 팔리오(Palio)가 가장 많이 팔리는 중고 차량 모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감가상각율이 높은 모델은 피아트사의 마레아(Marea) 세단으로 밝혀졌다. 제조사 별로는 포드 차량이 가장 감가상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업체 토요타와 혼다 자동차 모델들은 감가상각율이 낮아 사용 시간이 오래된 차량도 중고차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차종 별 감가상각율]

(단위: %)

차량 종류	1년 사용	2년 사용
Palio fire 1.0 8v(65cv)	6,89	8,12
Siena fire 1.0 8v(65cv)	7,31	8,46
Celta hatch spirit 1.4 8v	6,98	8,8
Peugeot 307 hatch feline 2.0 16v	11,76	9,13
Classic sedã spirit 1.0 8v	7,55	9,15
Strada trekk.(c.est) 1.8 8v(flex)	8,31	9,27
Fox hatch 1.0 8v(city ) (totalflex)	7,41	9,43
Corsa sedã joy 1.8 8v (flexpower)	7,93	9,52
Corsa hatch joy 1.8 8v (flexpower)	7,99	9,76
Renault clio hatch expres.1.6 16v (hi-flex)	8,24	9,8
Montana conquest 1.8 8v (flexp.)	7,89	9,89
Renault clio sedã expres.1.6 16v (hi-flex)	8,22	9,92
Fiesta hatch personalite (n.edge) 1.0 8v	8,69	10,12
Honda fit lx-cvt 1.4 8v	9,09	10,55
Fiesta sedã .supercharger 1.0 8v	8,5	10,78
Ka gl (n.serie) 1.0 8v/gl 1.0mpi	8,7	10,86
Meriva maxx 1.8 8v (flexpower)	8,33	10,91
Courier xl (cab. Simples) 1.6mpi	10,56	12,00
Polo hatch 1.6 8v(s.ouro )(totalflex)	8,33	12,66
Polo sed.1.6 8v (comfortl.) Totalflex 1.6 8v	8,51	12,73
Golf 2.0mi	11,14	13,4
Honda civic sedã ex-at 1.7 16v	11,38	13,74
Toyota corolla sedã xli 1.6 16v	11,98	13,83
Zafira comfort 2.0 8v (flexpower)	12,68	14,14
Ecosport xlt 2.0 16v	11,61	14,55
Renault scenic expression 1.6 16v (aut.)	13,47	15,12
Focus sedã glx 1.6 8v	13,28	15,49
Focus hatch glx 1.6 8v	13,07	15,63
Astra hatch advantage 2.0 8v (flexp.)	11,62	15,82
Astra sedã comfort 2.0 8v (flexp.)	10,94	16,3
Marea elx 1.8 16v	14,52	16,48

자료원: Agência AutoInforme

- 상파울로 중고차 판매업체 협회(Assovesp/Sindiauto)에 의하면, 2007년 4월 한 달 동안 전월대비 0.83% 증가한 116,789 대의 중고 차량이 판매되었다. 3월에는 전월대비 3.3% 증가한 115,822 대의 차량이 팔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월 한 달 동안 거래된 중고 차량 중 66%가 배기량이 1.0인 차량으로 밝혀져, 신차 및 중고차 분야 모두에서 국민차가 압도적으로 많이 거래됨이 입증됐다. 현재 거래되는 중고차 중






70% 이상이 장기할부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할부 기간은 평균 40개월로 밝혀졌다.

[판매순위 상위 9개 자동차 가격 비교]

	Gol 1.0/1.8	Palio 1.0/1.8	Celta1.0 Flex
모델			
제조사	Volkswagen	Fiat	GM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기통 1000cc/1800cc.</li> <li>- 5단 수동기어.</li> <li>- 49.7kW/5750rpm</li> <li>- 길이: 3931mm</li> <li>- 높이: 1414mm</li> <li>- 폭: 1645mm</li> <li>- 에어컨 없음 (*)</li> <li>* ) 버전에 따라 옵션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기통 1000cc/1800cc.</li> <li>- 5단 수동기어.</li> <li>- 47.5kW/6000rpm</li> <li>- 길이: 3827mm</li> <li>- 높이: 1433mm</li> <li>- 폭: 1634mm</li> <li>- 에어컨 없음 (*)</li> <li>* ) 버전에 따라 옵션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기통 1000cc</li> <li>- 5단 수동기어.</li> <li>- 51.5KW/6400rpm</li> <li>- 길이:3788mm</li> <li>- 높이:1408mm</li> <li>- 폭: 1626mm</li> <li>- 가솔린/ 알코올 경용</li> <li>- 에어컨 없음 (*)</li> <li>* ) 버전에 따라 옵션가능</li> </ul>
가격 (R\$)	최저: 2만 6490	최저: 2만 6140	최저: 2만 7771

	우노1.3 Flex	폭스1.0 City Flex	시에나 1.0 Flex
모델			
제조사	Fiat	Volkswagen	Fiat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기통 1300cc</li> <li>-5단 수동기어.</li> <li>-70.0CV(가솔린)/5500rpm</li> <li>-길이:3693mm</li> <li>-높이:1445m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기통 1000cc</li> <li>-5단 수동기어.</li> <li>-72.5 CV(가솔린)/ 5700rpm</li> <li>-길이:3804mm</li> <li>-높이:1544m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기통 1000cc</li> <li>-5단 수동기어.</li> <li>-65.0 CV(가솔린)/6000rpm</li> <li>-길이:4135mm</li> </ul>

	-폭: 1548mm -가솔린/알코올 겸용 -에어컨 없음 (*) (*) 버전에 따라 옵션가능	-폭: 1640mm -가솔린/알코올 겸용 -에어컨 없음 (*) (*) 버전에 따라 옵션가능	-높이:1425mm -폭: 1634mm -가솔린/알코올 겸용 -에어컨 없음 (*) (*) 버전에 따라 옵션가능
가격 (R\$)	최저 :23,990	최저 :29,645	최저 :33,130

	Corsa 세단 1.0 Flex	Fiesta Hatch 1.0 Flex	Strada trekking 1.4 Flex
모델			
제조사	Chevrolet	Ford	Fiat
특징	- 4기통 - 5단 수동기어. - 77CV/6400rpm - 길이: 4170mm - 높이: 1432mm - 폭: 1646mm - 에어컨 없음 (*) (*) 버전에 따라 옵션가능	- 4기통 1000cc/1800cc. - 5단 수동기어. - 71CV6000rpm - 길이: 3930mm - 높이: 1497mm - 폭: 1903mm - 에어컨 없음 (*) (*) 버전에 따라 옵션가능	- 4기통 1000cc - 5단 수동기어. - 80CV/5500rpm - 길이:4440mm - 높이:1525mm - 폭: 1664mm - 가솔린/ 알코올 겸용 - 에어컨 없음 (*) (*) 버전에 따라 옵션가능
가격 (R\$)	최저 : 26,290	최저 :31,593	최저: 42,000

자료원: Autoinforme, Renavam

### 3. 주요 유통망

- 브라질에서는 1920년부터 국내에서 자동차 조립 생산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일찌감치 자동차 유통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었다.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공식 판매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형태의 대리점이 등장하였다. 이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사 제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판매 대리점 형태의 영업을 권장, 현재 제조사 별로 전국 규모의 전문 대리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 자동차 판매 대리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는 자동차 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메이커 자동차 제품만을 취급하게 된다. 일례로 GM의 경우 브라질 전역에 500여개 이상의 전문 대리점이 있으며, 여타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도 수백여 개의 전문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 대리점 대부분이 신차와 중고차 모두의 판매 및

A/S를 담당하며, 관련 자동차 제조사는 운영 및 영업 일체를 관리한다. 이러한 형태의 영업은 소비자 입자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대리점 모두에서 전문적인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브라질 자동차 유통업 연맹(Fenabrave)은 자동차 판매 전문 대리점 협회가 모여 만든 단체로 총 35개의 대리점 협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 주로 브라질 시장에 진출해 있는 주요 자동차 제조사인 지엠, 피아트, 폴크스바겐, 포드, 토요타, 혼다, 시트로엥, 푸조 등의 전문 대리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현대와 기아 자동차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대리점 협회도 동 연맹에 소속되어 있다.
- 현재 브라질에는 특정 브랜드의 차량만 취급하는 4,937 개의 전문 대리점(Concessionaria)이 영업 중에 있으며, 일반 승용차, 승합차, 트럭, 버스, 모토 사이클, 농업용 차량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정 브랜드 전문 대리점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을 동시에 취급하는 판매점도 다수 영업 중이다.
- 수입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업체보다는 제조사가 직접 수입하여 자사 제품 전문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제조사가 직접 수입했을 경우 수입세가 면제되어 더욱 경쟁력 있는 가격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요 자동차 대리점 협회 리스트]

- ABBM - ASSOC. BRAS. DOS CONCESSIONÁRIOS BMW (BMW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RENATO CONILL
  - 주소: Rua: Joaquim Floriano - 466 - Conj. 404 - Itaim Bibi
  - 04534002 - SAO PAULO - SP
  - Fone: 11 - 30784933
  - Fax: 11 - 31682372
  - Email: abbmsede@terra.com.br
- ABCN - ASSOC. BRAS. DO CONCESSIONÁRIOS NISSAN (Nissan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MARCO NAHAS
  - 주소: Avenida: Indianopolis - 1967 - Indianópolis
  - 04063003 - SAO PAULO - SP
  - Fone: 11 - 55820038
  - Fax: 11 - 55948504
  - Email: abcnissan@uol.com.br
- ABRAC - Assoc. Bras. dos Conc. Chevrolet (Chevrolet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PEDRO SEGUNDO SELEME
  - 주소: Avenida: Dr Arnaldo - 2012 - Sumaré
  - 01255000 - SAO PAULO - SP
  - Fone: 11 - 38721800

- Fax: 11 - 38729202
- Email: nformatica@abrac.com.br
- Homepage: www.abrac.com.br
- ABRACAF - ASSOC. BRAS. DOS CONC. DE AUTOM. FIAT (Fiat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EDMO MENDONÇA PINHEIRO
  - 주소:Rua: Itápolis - 543 - Pacaembu
  - 01245000 - SAO PAULO - SP
  - Fone: 11 - 36619922
  - Fax: 11 - 36618666
  - Email: presidencia@abracaf.com.br
  - Homepage: www.abracaf.com.br
- ABRACIT - ASSOC. BRAS. DOS CONC. CITROËN (Citroen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LUIZ CARLOS BIANCCHINI
  - 주소:Rua: Bragança Paulista - 1336 - Vila Cruzeiro
  - 04727002 - SAO PAULO - SP
  - Fone: 11 - 56448561
  - Fax: 11 - 56410002
  - Email: abracit@abracit.com.br
- ABRACOP - ASSOC. BRAS. DOS CONC. PEUGEOT (Peugeot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ROBERTO RODRIGUES FIUZA
  - 주소:Alameda: dos Jurupis - 455 - 3ºANDAR - CONJ. 33 - Indianópolis
  - 04088001 - SAO PAULO - SP
  - Fone: 11 - 50534228
  - Fax: 11 - 50534228
  - Email: abracop@abracop.org.br
- ABRADA - ASSOC. BRAS. DOS DIST. AGRALE (Agrale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ERNESTO JAQUET NETO
  - 주소:Rua: Nestor Moreira - 435 - SAGRADA FÁMILIA - Lurdes
  - 95052500 - CAXIAS DO SUL - RS
  - Fone: 54 - 32225995
  - Fax: 54 - 32225581
  - Email: abrada@abrada.com.br
- ABRADIF - ASSOC. BRAS. DOS DIST. FORD AUTOS E CAMINHÕES (Ford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BENEDITO PORFIRIO LIMA
  - 주소:Avenida: Indianópolis - 529 - Indianópolis
  - 04063000 - SAO PAULO - SP
  - Fone: 11 - 50887788
  - Fax: 11 - 50887792

- Email: [abradif@abradif.com.br](mailto:abradif@abradif.com.br)
- Homepage: [www.abradif.com.br](http://www.abradif.com.br)
- ABRADIT – ASSOC. BRAS. DOS DIST. TOYOTA (Toyota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RIGUEL CHIEPPE
  - 주소:Av.: Engenheiro Luiz Carlos Berrini – 1511 – Conj. 162 – Brooklin Novo
  - 04571011 – SAO PAULO – SP
  - Fone: 11 – 55045504
  - Fax: 11 – 55045500
  - Email: [abradit@abradit.org.br](mailto:abradit@abradit.org.br)
  - Homepage: [www.abradit.org.br](http://www.abradit.org.br)
- ABRAHY – ASSOC. BRAS. DOS CONC. HYUNDAI (Hyundai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LUIZ FELIPE LIMA LAITANO
  - 주소:Avenida: Indianópolis – 1967 – Indianópolis
  - 04063003 – SAO PAULO – SP
  - Fone: 11 – 55820000
  - Fax: 11 – 55820001
  - Email: [abrahy@tela.com.br](mailto:abrahy@tela.com.br)
  - ABRARE – ASSOC. BRAS. DOS CONC. RENAULT(Renault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MELCHIOR LUIZ DUARTE DE ABREU
    - 주소:Avenida: Indianópolis – 1967 – Indianópolis
    - 04063003 – SAO PAULO – SP
    - Fone: 11 – 55820000
    - Fax: 11 – 50726948
    - Email: [abrare@uol.com.br](mailto:abrare@uol.com.br)
    - Homepage: [www.abrare.com.br](http://www.abrare.com.br)
- ABRAV – ASSOC. BRAS. DOS REVENDADORES DE AUTOM. VOLVO(Volvo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PAULO PIRES SIMÕES
  - 주소:Avenida: Indianópolis – 1967 – Indianópolis
  - 04063003 – SAO PAULO – SP
  - Fone: 11 – 55820000
  - Fax: 11 – 55820001
  - Email: [abrav@tela.com.br](mailto:abrav@tela.com.br)
- ABRAVO – ASSOC. BRAS. DOS DIST. VOLVO(Volvo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PAULO ROBERTO PIZANI
  - 주소:Rua: Visconde do Rio Branco – 1310 – Conj. 41 – Centro
  - 80420210 – CURITIBA – PR
  - Fone: 41 – 30297978
  - Fax: 41 – 30221299
  - Email: [abravo@abravo.com.br](mailto:abravo@abravo.com.br)
  - Homepage: [www.abravo.com.br](http://www.abravo.com.br)

- ACAV -ASSOC. BRAS. DOS DIST. VOLKSWAGEN CAMINHÕES(Volkswagen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JULIO CEZAR BRONDANI
  - 주소:Avenida: Indianópolis - 2422 - Indianópolis
  - 04062002 - SAO PAULO - SP
  - Fone: 11 - 55819211
  - Fax: 11 - 55916513
  - Email: diretoria@acav.com.br
  - Homepage: www.acav.com.br
- ANCIVE - ASSOC. NAC. DOS CONC. IVECO(Iveco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AIRTON VIEIRA PINTO
  - 주소:Avenida: Paulista - 807 - CONJ. 218 - Cerqueira César
  - 01311915 - SAO PAULO - SP
  - Fone: 11 - 32860344
  - Fax: 11 - 2873835
  - Email: ancive.sede@uol.com.br
  - Homepage: www.ancive.com.br
- ASSOAUDI - ASSOC. BRAS. DOS DIST. AUDI(Audi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LUIZ SÉRGIO DE OLIVEIRA MAIA
  - 주소:Avenida: Indianópolis - 1967 - Indianópolis
  - 04063003 - SAO PAULO - SP
  - Fone: 11 - 50719911
  - Fax: 11 - 55820042
  - Email: assoaudi@tela.com.br
- ASSOBENS - ASSOC. BRAS. DOS CONC. MERCEDES BENZ(Benz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JOÃO BATISTA LIBANIO PASSOS SAADI
  - 주소:Avenida: Arnolfo Azevedo - 26 - Pacaembu
  - 01236030 - SAO PAULO - SP
  - Fone: 11 - 36733644
  - Fax: 11 - 38733681
  - Email: assobens@assobens.com.br
  - Homepage: www.assobens.com.br
- ASSOBRASC - ASSOC. BRAS. CONC. SCANIA(Scania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RENATO MOTTIN
  - 주소:Avenida: Sao Luis - 50 - 19º ANDAR CJ.191 - Republica
  - 01046926 - SAO PAULO - SP
  - Fone: 11 - 32595922
  - Fax: 11 - 32552207
  - Email: brasc@assobrasc.com.br
  - Homepage: www.assobrasc.com.br

- ASSOBRAV – ASSOC. BRAS. DE DIST. VOLKSWAGEN(Volkswagen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ELIAS DOS SANTOS MONTEIRO
  - 주소:Avenida: José Maria Whitaker – 603 – Mirandópolis
  - 04057000 – SAO PAULO – SP
  - Fone: 11 – 50785400
  - Fax: 11 – 50795190
  - Email: elias@zamora.com.br
  - Homepage: www.assobrav.com.br
- ASSOHONDA – ASSOC. BRAS. DE DIST. HONDA(Honda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RENATO KAEFER
  - 주소:Alameda: dos Jurupis – 455 – 2º ANDAR CJ. 23/27 – Indianópolis
  - 04088001 – SAO PAULO – SP
  - Fone: 11 – 50517733
  - Fax: 11 – 50517733
  - Email: assohonda@assohonda.org.br
  - Homepage: www.assohonda.org.br
- ASSOKIA – ASSOC. BRAS. DOS DIST. KIA MOTORS(Kia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JEFFERSON FÜRSTENAU
  - 주소:Avenida: Indianópolis – 1967 – Indianópolis
  - 04063003 – SAO PAULO – SP
  - Fone: 11 – 55820000
  - Fax: 11 – 55820001
  - Email: assokia@tela.com.br
- ASSOMIT – ASSOC. BRAS. DE CONC. MITSUBISHI(Mitsubishi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MARCOS CARDOSO CÉZAR DA SILVA
  - 주소:Rua : Joaquim Floriano – 466 – Cj. 1901 – 19ºand – Itaim Bibi
  - 04534002 – SAO PAULO – SP
  - Fone: 11 – 21651560
  - Fax: 11 – 21651564
  - Email: assomit@assomit.com.br
  - Homepage: www.assomit.com.br
- AUTOHONDA – ASSOC. BRAS. CONC. HONDA DE VEÍC. AUT. NAC. E IMPORTADOS(Honda 자동차 대리점 협회)
  - 대표: JÚLIO VENTURA NETO
  - 주소:Rua: Joaquim Floriano – 101 – CONJ. 707 – 7º ANDAR – Itaim Bibi
  - 04534010 – SAO PAULO – SP
  - Fone: 11 – 30745400
  - Fax: 11 – 31685405
  - Email: autohonda@autohonda.net
  - Homepage: www.autohonda.net

□ 자동차 산업 관련 협회

○ 협회명: ANFAVEA (브라질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

- 홈페이지: [www.anfavea.org.br](http://www.anfavea.org.br)
- 이메일: [anfavea@anfavea.org.br](mailto:anfavea@anfavea.org.br)
- 전화: (55-11) 2193-7800

○ 협회명: ANDAP (브라질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 협회)

- 홈페이지: [www.andap.org.br](http://www.andap.org.br)
- 이메일: [info@andap.org.br](mailto:info@andap.org.br)
- 전화: (55-11) 3266-7700

○ 협회명: Sindipeças (브라질 자동차부품 산업조합)

- 홈페이지: [www.sindipeças.org.br](http://www.sindipeças.org.br)
- 주소: Avenida Santo Amaro, 1386 - Vila Nova Conceicao - 04506-001 - Sao Paulo - SP - Brasil
- 전화: (55 11) 3848-4848 / 팩스 : (55 11) 3848-0900

4. 매체 광고비

□ 잡지

○ Autodata / Guia Automotive Business

- 특징: 신차/중고차 및 부품 시장 동향을 주로 다룸
- 전면 광고: 24,258 헤알
- 1/2 면 광고: 16,000 헤알
- 1/3 면 광고: 9,785 헤알
- 배포 대상: 잡지 구독자 및 mailing 신청자
- 잡지 규격: 20.5X27.5cm
- 발행부수: Autodata(매월 12,000부) Guia Automotive Business(연1회, 10,000부)
- 연락처:(55-11) 5189-8900
- E-mail:[comercial@autodata.com.br](mailto:comercial@autodata.com.br)

○ Revista Caminhao e CIA

- 특징: 트럭 시장 최신 동향
- 전면 광고: 26,682 헤알
- 1/2 면 광고: 17,607 헤알
- 1/3 면 광고: 10,764 헤알
- 배포 대상: 잡지 구독자 및 mailing 신청자, Banca de Jornais(키오스크형 잡지판매점)
- 잡지 규격: 20.5X27.5cm



- 발행부수: 격월간 25,000부
- 연락처:(55-11) 5189-8900
- E-mail:comercial@autodata.com.br

○ Guia de Compras Onibus

- 특징: 버스 시장 동향
- 전면 광고: 16,000 헤알
- 1/2 면 광고: 10,564 헤알
- 1/3 면 광고: 6,880 헤알
- 배포 대상: 잡지 구독자 및 mailing 신청자, Banca de Jornais(키오스크형 잡지판매점)
- 잡지 규격: 20.5X27.5cm
- 발행부수: 연 1회 6000부
- 연락처:(55-11) 5189-8900
- E-mail:comercial@autodata.com.br

○ Mercado Automotivo

- 특징: Aftermaket 관련 각종 정보 제공
- 배포 대상: 잡지 구독자 및 mailing 신청자
- 잡지 규격: 21.0 X 28.0cm
- 발행부수: 매월 15,000부
- 연락처:(55-11) 6959-5190
- E-mail:comercial@photon.com.br

○ Aftermarket

- 특징: 자동차부품유통업체협회(ANDAP)가 발행하는 atermaket 관련 각종 정보 제공
- 배포 대상: 잡지 구독자 및 mailing 신청자
- 잡지 규격: 21.0 X 28.0cm
- 연락처: (55-11) 3266-7700
- E-mail:Info@andap.org.br

○ Anuario da Industria Automobilistica Brasileira

- 특징: 브라질 자동차산업 협회 ANFAVEA가 발행하는 연감
- 배포대상: 자동차 산업 관련 업체 및 일반 독자
- 잡지규격:20.5cm X 27.5cm
- 연락처:(55-11) 2193-7800
- E-mail:anfavea@anfavea.com.br

○ Desempenho do Setor de Autopecas

- 특징: 브라질 자동차 부품산업 협회 SINDIPECAS 가 발행하는 연감
- 배포대상: 자동차 산업 관련 업체 및 일반 독자
- 잡지규격:20.5cm X 27.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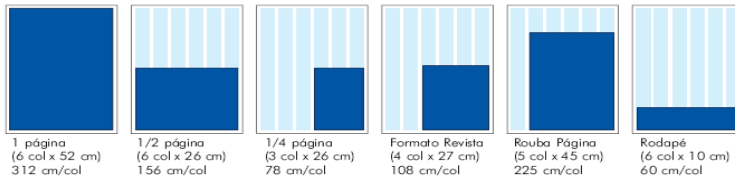
- 연락처:(55-11) 3848-3838
- E-mail:sindipecas@sindipecas.com.br

신문

Folha de Sao Paulo

- 특징: 상파울로 주를 대표하는 일간지
- 전면광고 크기:29.7cm(6단) X 52cm

**■ Formatos Recomendados  
Demais Páginas Standard**



**■ Formato Standard - Altura 52 cm**

Coluna	1	2	3	4	5	6
Largura (cm)	4,6	9,6	14,6	19,6	24,6	29,7

- 가격: 평일이 일요일보다 다소 저렴함.
- 평일: 323 헤알 X 단수(1단=4.6cm) X 높이(cm)
- 일요일: 420 헤알 X 단수(1단=4.6cm) X 높이(cm)
- 전화: (55-11) 3224-3233

**IV. 수출 시 참고 사항**

**1. 수출 요건**

수입 관세

HS Code	II(수입세)	IPI(공산품세)	ICMS(주 유통세)
8703	35% (8703 하부 전 품목 동일)	7~45% (하부 품목에 따라 상이)	18% (상파울로주 내 유통 시)

수출 요건

-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자동차 제조업체가 직접 수입한 차량은 54,137 대로 전년 동기 대비 70.77%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브라질 정부는 차량 수입 전문

업체가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35%나 부과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 제조업체가 수입 시에는 관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어 수입 관세로 인한 가격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수입 차량이 자동차 제조업체에 의하며 직접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 브라질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자동차 업체들은 높은 관세 때문에 브라질과 자동차 분야 쌍무 관세 특혜 협정을 맺고 있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에 수출 기지를 마련하여 무관세로 수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브라질 현지에 생산시설을 건설하여야 높은 관세부담이 없어 원가 절감할 수 있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거기에서 신속한 애프터서비스도 가능하여 소비자들에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 한편 2006년 상파울루 자동차 전시회(Salao de Automovel - [www. salaodoautomovel .com.br](http://www.salaodoautomovel.com.br))를 통하여 현대 및 기아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가의 승합차 전문 업체 이미지에서 SUV와 중형 sedan차량을 선보이며 고급스런 이미지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전시회 참가를 통해 브라질 소비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시장 진출에 실패하지 않는 좋은 전략으로 사료된다.

## 2. 상거래 관행

- 세계 최고 수준의 금리와 상관습에 따라 D/A, D/P 등 외상거래를 선호하며, 현지 전기전자 및 자동차 등 내구성 소비재 판매 시에도 외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다.
- 거래 시 상품의 품질과 가격 못지않게 인간관계를 중시하므로 여유 있고 끈질긴 비즈니스 활동이 필요하다. 곧바로 비즈니스 대화로 들어가는 것보다 상담에 앞서 축구, 음악, 기후, 음식 관련 대화로 친밀감을 갖는 것이 좋다. 다양한 인종으로 이뤄진 이민국가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라틴계가 주류이며 중동, 유대계, 일본, 중국, 한국 등 중동 및 아시아계가 약진 중이다.
- 브라질에는 상사중재원이 없고 상사분쟁 관련 국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수출입 업체 사이에 분쟁 발생시 해결이 어렵다.